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199X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9년 5월 13일(월요일) 장 소 : 브리콜라쥬							
참석자 명단	학번	20162121	이름	유선진	학번		이름	
	학번	20182120	이름	신호영	학번		이름	
	학번	20183934	이름	유선아	학번		이름	
	학번	20183943	이름	이세현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1회> 도서 - 90년생이 온다, 임흥택, whale books, 2018 [90년생이 온다] 1부를 읽고 질문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토의해보았다.</p> <p>Q1. 90년대생의 현재 모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어떠한가?</p> <p>유선진 - 현재 90년대 생은 어떠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추상적이지만, 지금의 선택에 따라 긍정적인 방향 혹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그러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방향이라 함은 보다 향상된 삶의 질과 취업 장면 등을 생각해보았고, 부정적인 방향이라 함은 꿈과 비전이 없는 90년대 생의 삶을 생각해보았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론 현재의 90년대 생은 부정적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장래희망으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꿈을 설정했던 옛날과 달리 요즘은 안정적인 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을 장래희망 및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학과와 상관없이 낮은 학년의 대학생부터 공무원을 목표로 삼고 인터넷 강의를 구매하거나, 심지어 대학을 가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공무원 기숙 학원을 가는 경우도 생겨났다. 이러한 90년대 생들의 변화는 현실적이라는 좋은 점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꿈과 비전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는 부정적인 점을 보여준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공무원 준비를 뒤따르는 경향 또한 많아지고 90년대 생의 부모들도 취업난에 허덕이는 자녀에게 공무원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일수이다. 이러한 현상이 대두되는 90년대 생들에게 관여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낀다.</p> <p>신호영 - 나는 부정적인 소식을 긍정적인 것들보다 많이 접해서인지 90년대가 마주친 세상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 취업난을 비롯하여 기성세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어우러지면서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한 국가에서 공무원이 인기가 많아지면 그 나라는 건강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딱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성세대는 90년대생이 왜 공무원이란 직종을 바라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책에서도 기술되었듯 국</p>							

가는 이런 현실에 대해 올바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책들을 내는 사람들은 거의 기성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바쁜 모습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들이 쌓여 가면서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져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면서 하는, 이른바 “꼰대짓”을 더 참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 같다.

유선아 - 나는 90년대생의 모습 중 공시족에 대하여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공무원에만 몰리는 이 현상이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점점 더 공무원에 몰리는 현상이 심해지고 사회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무원에 몰리는 이 현상의 원인을 사회의 불합리, 부조리 등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90년대생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지는 모르고 주변에서 공무원이 좋다고 하니깐 따라서 시험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공무원에 응시하는 인원도 많지만, 그만큼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퇴사하는 사람도 많다고 알고 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시족이 되고 시험에서 몇 번이나 떨어진 사람들에게 진정 공무원만이 자신의 길이라 생각되는지, 왜 공무원의 길을 선택했는지 묻고 싶다. 나는 90년대생이 스스로 이를 깨닫고 자신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찾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세현 - 유난히 공무원이 되길 바라는 90년대생의 현실에 대해 안타깝다고 느꼈다. 직업의 안정성만을 보고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한 채 공무원을 외치는 사람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공시족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은 맞다. 하지만 그들이 공시족이 된 것은 그들의 영향보다 사회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느꼈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취업 자체가 힘들어지고 정년퇴직도 짧아지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공무원이란 답이 나온 것이다. 얼마나 미래가 불안했으면 명문대학에 다니는 학생도, 고등학교 전교권인 학생도, 직장인들도 모두 공무원을 택했는지 안타깝다. 공시족을 무조건 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봐야한다고 생각한다.

Q2. 책에 나온 90년대생의 세 가지 특징 중 가장 공감하는 것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유선진 - 간단함이라는 특징이 가장 공감이 간다. 잘 생각해보면 간단함이 재미와 정직에서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재미에 있어서 흔히들 ‘병맛’이라고 말하는 재미도 간단하고 생각할 필요 없는 재미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직과 투명성을 바라는 것 또한 그 절차가 간단하지 않다면 90년대 생은 그 정직과 투명성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주저할 수 있다. 비밀번호 하나로 결제가 완료되는 결제 시스템이나 적립과 결제가 한 번에 되는 카드 등 90년대 생이 추구하는 간단함을 표적으로 변화된 시스템이 많아진 현상을 보면 그 변화와 특징을 느낄 수 있다.

신호영 - 나는 “정직”이 가장 공감이 갔다. 사실 처음에 키워드만 보았을 때는 또 무슨 이상한 소리를 적어 놓은 건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은 비판적인 눈으로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행히, 해당

내용을 읽어가면서 그렇게까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느껴졌다. 오히려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공감하면서 읽어 나갈 수 있었다. “정직”이라는 용어선택이 딱 들어맞지 않다고 느껴졌을 뿐 그 내용에는 이상이 없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는 얘기였는데,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런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다고 느껴졌다. 예전이였다면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라고 그냥 넘어갔을 일들을, 이제는 “똥이 있으면 피하지 말고 치우자”로 변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일들이 증가한 것 같다.

유선아 - 나는 ‘간단’이라는 특징에 가장 공감이 간다. 확실히 시대가 변하면서 90년대생은 전 세대와는 다르게 훨씬 간단해졌다.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그 중에서도 필요한 것만 요구하면서 필요한 것만 습득한다. 이는 과학발전으로 인한 현상 중 하나라고도 생각한다. 책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예전에는 정보를 찾을 때 책이 먼저였다면 우리 세대는 인터넷,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2000년대생은 유튜브라고 한다. 이제는 글 읽는 세대를 넘어서 동영상을 보는 세대로 나아가고 있다. 세상은 점점 더 간단해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더 편리해지고 효율적이게 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세현 - ‘재미’라는 특징에 제일 공감한다. 유난히 다른세대들 보다 더욱 재미를 중요하게 느끼고 이로써 재미는 거의 모든 분야의 필수요소가 되었다. 재미가 없는 것에는 잘 관심을 갖지 않으며 재미가 있는것에 더욱 관심을 갖거나 소비한다. 유튜브만 봐도 재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이 많고, 조회수또한 많았다. 옛날엔 정말 무언가를 알리려고 했으나 요즘은 재미와 결합해 보다 강한 인상을 남기려는 광고가 많다. 재미와 관련해 가장 인상깊었던 것이 장난스럽게 남긴 고객의 1:1 문의에 재치있게 답변한 것이 인터넷에 공유되며 그 회사가 알려지게 된 일이다.

원래는 재미를 중요시 여기며 재미가 없으면 관심이 없는것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은 없었으나 이러한 사례를 보며 긍정적인 측면을 갖게 되었다.

Q3. 책에 나온 90년대생의 세 가지 특징 중 가장 공감이 안 되는 것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유선진 - 가장 공감이 되지 않는 특징은 정직이다. 정직과 투명성을 바라는 것은 90년대 생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바람이 이뤄지지 않았느냐 이뤄졌느냐의 차이인 것 같다. 물론 예전에 비해 정직과 투명성을 바라는 목소리와 힘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90년대 생의 특징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정직과 투명성은 항상 이뤄져야하는 목록이며, 그것을 90년대 생의 특징으로 정해버리면 옛 세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 같다. 정치적 세력으로 인해 정직과 투명성을 이루지 못했던 옛 세대 또한 그것을 바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호영 - 나는 “병맛”이 가장 공감가지 않았다. 물론 한 세대의 모든 사람이 같은 특성을 무조건적으로 공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나와 맞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라는게 있지 않은가. ‘나는 그렇지 않지만, 그럴 수 있어’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솔직히 조금 편협한 시각이라고 느껴졌다. 나머지 두 가지 속성은 어느 정도 공감은 갔다. 하지만, 병맛은 정말 개인의 취향의 문제이지 이게 90년대생의 속성이라고까지 보는 것은 너무 큰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트위터와 같은 SNS상에서 이런 요소가 인기가 많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 SNS를 이용하는 90년대생도 일부이고, 이것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 또 그 일부 중에 일부라고 생각한다. 예시로 든 박준형의 유튜브 채널도 그렇다. 이름도 알고, 짤방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내 주위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나는 98년생으로 90년대생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세대에서는 그나마 어린 축인데, 그런 우리 나이대에도 보는 사람이 없다. 내가 느끼기에 이 콘텐츠가 인기있는 연령대는 오히려 우리 뒷세대라고 느껴진다. 따라서 나는 잘못된 예시이고, 더 나아가 적절하지 못한 특징이라고 느꼈다.

유선아 - 나는 '정직'이라는 특징에 가장 공감이 되지 않았다. 사실 '정직'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90년대생의 특징 중 하나가 '정직'이라면 그러면 그 전 세대에서는 '정직'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 나는 모든 세대마다 정직은 추구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자가 생각하기에 90년대생에게서 '정직'의 모습이 더 뚜렷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사실 '정직'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손해 보지 않으려는 모습일 것이다. 나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내보이는 모습이 90년대생의 특징일 것이다.

이세현 - 나도 '정직'이라는 특징에 공감이 되지 않았다. 먼저 성격으로 세대의 특징이라고 말하는것은 지나친 일반화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90년대생과 정직은 약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90년생중 한명인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닐때만 해도 정직한 사람보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 예를들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속여서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도 꽤 존재했다. 이렇게 90년대생인 내가 90년생들과 생활해본 결과 '정직'이라는 특징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든다.

Q4. 책의 1부에서 나온 90년대생들의 이야기 중 자기가 직접 겪은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

유선진 - 먹방(먹는 방송)과 맛집 탐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지금은 약간 시들었지만 한 때 90년대 생들 사이에서 먹방, 일명 먹는 방송이 유행했었다. 너도 나도 먹는 방송을 찍으며 시청자수를 늘리고 더 나아가 수입으로 연결 지었다. 또한 음식과 관련하여 맛집 탐방이라는 주제 또한 여행의 테마로 설정하는 등 유행을 이끌었다. 처음에는 두 가지 모두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특히 맛집 탐방은 직접 해보면서 그에 따른 재미와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맛집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친구들과 지인에게 자랑삼아 말할 수도 있고, 지인과 함께 맛집을 찾아가 맛있게 식사를 하면 그에 따른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맛집 탐방은 맛있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었으며 맛집을 찾고, 직접 찾아가고, 식사하기까지의 과정 전부가 좋은 추억거리가 되었다.

신호영 - 내가 직접 겪은 일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굳이 쥐어 짜낸다면 내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일은 역시 공무원인 것 같다. 약 1~2년

정도 전에 사촌 언니가 공무원에 합격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 친가 사촌들 중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축에 속하는 분이셨고, 부모님으로부터도 정말 애살있는 아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던 언니였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나는 당연히 취업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다.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본인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에 그럴 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공무원을 준비 중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의 충격은 아직까지 생생하다. 그때 처음으로 공무원 시장의 인기와 규모를 실감했던 것 같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원하다고 해도 내 주위에 그 당사자가 없으면 실감하기 힘들 수 있지만, 한사람이라도 주위에 생기니 정말 확 실감 났다. 사촌 언니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놀러갔을 때, 지하철에서 본 공무원 준비 중인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지방 사람이라 실감하지 못했을 뿐, 서울에만 가면 공무원 시장이 가장 활발한 곳이니만큼 심심치 않게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을 마주칠 수 있었다.

유선아 - 90년대생의 특징 '재미' 부분에 나온 이야기 중 '나무위키'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나는 나무위키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조금 최근에서야 나무위키를 왜 사람들이 재미있게 보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 사전처럼 공식적인 사실도 들어가 있으면서 사소한 내용까지도 들어가 있다. 그 사소한 내용에서 우리들은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나무위키는 일반 네티즌들이 다 같이 쓰는 사전이기에 정확성과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90년대생은 더 이상 딱딱한 사실만 요구하지 않음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했다.

이세현 - 책에서 재미로 90년대생의 인기를 끈 박준형의 유튜브 채널 '와썹맨'이 언급되었다. 한동안 나도 즐겨보던 채널이었다. 주인공인 박준형의 영어가 섞인 약간 서툰 한국어 (정말 단지 서툰모습이 유머로 소비되는 것은 아니고, 외국에 오래있던 만큼 한국에서도 오래있었지만 그에 비해 서툰 한국어가 유머로 소비되는 것), 습관이 되어 말끝마다 붙이는 빼앰, 솔직하고 직설적인 말이 나를 비롯한 사람들이 이 채널을 보는 이유이다. 포괄적으로 재미 위주의 영상이며 재미를 우선시 하는 90년대의 관심을 완벽히 끌었다고 본다.

Q5. 90년대생의 특징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적인 사회현상은 무엇이 있는가?

유선진 - 과도하고 빨라진 유행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유행은 과거에도 있었다. 하지만, 유독 요즘 유행의 흐름이 빨라졌다고 생각한다. 유튜브 및 유튜버가 유행하기 시작하자, 너도 나도 유튜버가 되었고, 청년사업이 유행하면서 너도 나도 청년 사업을 하고, 푸드트럭이 유행하면서 너도 나도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이처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유행이 확 불타오르지만 지속하지 못하고 금세 꺼져버리는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을 생각해보면 현재 90년대 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오로지 남이 하는 것이 좋아보여서 시도했다가 잘 맞지 않아 그만두는 것으로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꿈과 비전을 찾지 못한 90년대 생들의 빠른 유행 흐름이 부정적인 사회현상이라고 생각했다.

신호영 - 90년대생이 정답은 아니다. 그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에

속하다 보니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있다. 90년대생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적인 사회현상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사회현상이 90년대생의 잘못이 아니라 그에 맞게 대응하지 못하고 옛 방식을 고수한 채 그 방식을 강요하는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느껴질 뿐이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짧아 떠오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당장 나에게 떠오르는 부정적인 사회현상들은 일종의 과도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도기적 변화로만 인식이 된다.

유선아 - 나는 SNS의 과도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이벤트나 공지사항 등 무엇이든 간에 SNS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한다. SNS가 파급력도 좋고 글을 쓰기도 쉽지만, SNS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꽤 불편한 사항이다. SNS와 동시에 공식 홈페이지나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서도 공지사항과 같이 중요한 내용은 같이 올렸으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세현 - 나는 유행에 필요 이상으로 민감해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을 활발히 사용하는 90년대생은 빠르게 달라지고 퍼지는 유행에 쉽게 노출된다. 이에따라 무언가가 유행하면 그 유행에 따르게 된다. 이는 충동구매로 이어지기도 하며 자신의 의지가 아닌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판단의 주체가 더 이상 자신이 아니게 된다. 그리고 요즘 SNS를 통해 비춰지는 자신에 더욱 초점을 맞추게 되며 유행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 무언가가 유행하면 그걸 안 하는(또는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따라가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충동구매같은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보다 행동, 판단의 주체가 내가 아니어져 가는 것이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2019년 5월 13일

참가자대표 : 유선진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199X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9년 5월 14일(화요일) 장 소 : 브리콜라쥬							
참석자 명단	학번	20162121	이름	유선진	학번		이름	
	학번	20182120	이름	신호영	학번		이름	
	학번	20183934	이름	유선아	학번		이름	
	학번	20183943	이름	이세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2회> 도서 - 90년생이 온다, 임흥택, whale books, 2018 [90년생이 온다] 2부-'90년대생이 직원이 되었을 때'를 읽고 질문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토의해보았다.</p>							
	<p>Q1. 90년대생이 직장에서 간부가 되었을 때, 그 직장의 보편적인 모습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p> <p>유선진 -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적인 모습 둘 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이상적인 모습은 정시출근, 정시퇴근이 지켜지며, 취업난에 허덕이지 않을 일자리를 보급하고, 무자비한 회의나 회식이 적은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러한 이상적인 모습을 갖추기는 아직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실적인 모습을 생각했을 때 지금의 현실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어느 직장은 위에서 말한 이상적인 모습이 그려지는 반면, 또 어느 직장을 그렇지 못할 것이다.</p> <p>신호영 - 암울한 이야기지만, 우리 세대가 간부가 되어있을 시점이라면 우리가 “꼰대”가 되어있을 것 같다. SNS상에서 우스갯소리로 퍼져나가는 ‘또라이 질량 법칙’처럼 어느 세대, 어느 조직이든 간에 꼰대는 항상 있을 것이고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우리가 욕하고 있는 기성세대의 면모를 조금을 다르게, 그렇지만 우리 뒷세대가 보기에는 크게 다를 바 없는 꼰대짓을 하고 있을 것 같다. 당장 대학만 다녀도 별의별 사람을 만나고, 아직 20대 초중반인 사람이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꼰대짓을 하는 것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커서 간부가 되면 똑같이 꼰대짓을 할 것은 뻔하고, 다만 그러지 않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그럴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책에서도 권고한 대로, 자신이 언제든 꼰대짓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점검표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징글징글한 꼰대들의 꼰대짓을 보아왔고, 또 견뎌왔다. 그들이 주는 괴로움과 짜증을 실감했다. 우리 뒷세대만큼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또 우리가 간부가 되어있을 만한 미래에는 수평적인 회사 조직도가 보편화 되</p>							

어있기를 바란다.

유선아 - 현재 유럽의 직장모습처럼 개인생활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직장이 보편적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대부분의 90년대생들은 전 세대들의 공동체 문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또한, 직장사람들과의 모임보다는 자신의 개인 취미생활모임이나 사적인 모임을 더 중요시한다. 이런 특징으로 보았을 때, 미래에 90년대생들이 기성세대가 되면 야근도 많이 없어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이 매우 평범하고 정상적으로 볼 것 같다.

이세현 - 내 생각에는 직장에서의 위계질서가 없어지고, 칼퇴를 눈치보지 않는 직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직장에서 일해본적은 없지만, 인터넷에서 봤던 직장은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분위기 였고 이로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지금 점차 90년대생이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며 앞서 말한 것들을 겪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한번씩 꼭 해볼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에서 '90년대생은 부당한것이 있을 때 기성세대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다' 라는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 있었다. 난 이 내용에 동감했고 부당한것을 경험한 90년대생이 간부가 된다면 위계질서가 없어지고, 칼퇴를 눈치보지 않는 등 직장의 많은 변화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Q2. 우리나라의 워라밸 캠페인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유선진 - 경쟁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한국 직장의 현실은 생계를 위해 자신의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많이 일을 해야 한다. 그렇기에 다른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고 휴식을 취할 때 자신이 더 일을 한다면 남들보다 더 나아갈 수 있으므로 다들 편하게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인들이 워라밸을 원하지만 본인들이 워라밸의 실천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한다. 워라밸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서라면 모두가 서로를 믿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지각을 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신호영 - 90년대생이 진정으로 공무원을 바라는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절대 소시민이 되어보지 못한 우리의 잘나신 기성세대 분들은 어째서 공무원이란 직종이 인기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캠페인을 실시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당사자들의 현재 상황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등 그들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캠페인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소시민적 경험도 부족하고, 그들만의 세상에 갇혀 더이상 국민을 위한 정책을 계획하지 못하는, 탁상공론만 하고 앉아 있는 답답한 어른들이다. 해외의 성공사례 등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지도 못한 것인지, 아님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도 못한 것인지 수많은 시도했음에도 모든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일본조차 성공한 워라밸 캠페인은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연이어 실패한 데에는 발전 없는 정부의 탓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책에서 한 90년대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를 기획하는 정성만 있었어도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하진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유선아 - 워라밸이라는 것은 캠페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워라밸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는 직장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누구나 워라밸을 꿈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워라밸이 안 되는 이유는 본질적인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쉬고 있다면 경쟁회사가 더 앞서가게 된다. 그렇기에 각 회사들은 쉬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 교육 분야에서도 드러나는 모습이다. 진정으로 워라밸을 이루려면 위에서부터 바뀌어야 하고 본질적인 안정이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유는 나의 자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캠페인만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세현 - 우리나라에서 워라벨 캠페인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이 성과 위주의 사회라고 생각한다. '성과'가 회사 내에서 중요해지다 보니(진급, 보너스 등등) 이것에 몰두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라이프밸런스를 생각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하고, 휴식 생각을 못하는 것이다. 물론 직원 입장에서도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를 중요하게 여겨 워라벨 캠페인이 실패했다고 본다. 일을 어떻게 많이, 빠르게 처리할지 생각하는 회사 수에 비해 직원들을 생각하고 복지를 어떻게 좋게 해줄지 생각하는 회사가 턱없이 적다는 의견이다.

Q3. 요즘 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4일 근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유선진 - 나는 주4일 근무를 반대한다. 물론 주말이 3일이 되면서 보다 워라벨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겠지만 반대의 상황을 더 신경써야한다고 생각한다. 주4일 근무가 된다면 직장에서는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해야 할 것이다. 더 적은 시간에 같은 양의 일을 끝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90년대 생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원래 직장에 속해있던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적어질 것이다. 생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설불리 주4일 근무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주5일 근무인 상황에서 충분히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을 주4일 근무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신호영 - 나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주5일 근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놀토'를 경험한 세대로써 토요일에 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행복인 일인지 실감할 수 있다. 그리고 일주일 중에 일요일 하루만 쉬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가. 우리나라 회사의 아주 나쁜 특징 중 하나가 야근이 밥 먹듯이 있다는 점이다. 피로에 절은 회사원들이 단 하루만 쉴 수 있다는 것은 비윤리적, 비도덕적, 비인간적으로까지 생각되었다. 그래서 주5일이 되었을 때는 진심으로 기쁘게 반길 수 있었다. 그런데 주4일이 시행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지만 조금 거부감이 든다. 문가 너무 많이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주5일이 시행된다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도 나와 같은 반응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4일 시행되어도 주5일 시행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금방 적응이 되고, 조금만 일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을 상상만 했을 때라 그런지 거부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지난해 월공강 성공하여 주4

일을 체험한 적이 있다. 신입생이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무척 태평하게 즐길 수 있었다. 그리고 심하게 풀려있던 탓인지 학점도 같이 태평해졌다. 나의 의지박약이 문제일 수 있지만, 주4일 시행된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쉬는 것에 심하게 몸이 길들여져 일의 능률이 보다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주4일 근무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유선아 - 나는 매우 좋은 정책이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주6일에서 주5일로 줄일 때도 현재와 같은 반대의견들이 많았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주5일로도 괜찮게 지내고 있다. 주4일로 바뀌어도 나는 현재와 같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저시급은 높이고 주4일로 줄이는 것은 현재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 복지가 좋다는 나라의 모습과 일치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르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에도 동감하지만 이대로 간다면 언제까지고 그때는 이르다고 말할 것이다. 지금 현재 변화를 보인다면 우리들은 다른 미래를 만들 것이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원하는 사회가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세현 - 주4일제 근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찬성이다. 지금 많이 시행하는 주5일제는 일하는 날에 비해 휴일이 너무 적고 치우쳐 있다고 생각한다. 주4일제를 도입해 금, 토, 일이 휴일이 되던가 수, 토, 일이 휴일이 되게 해 중간에 휴일을 주면 피곤도 덜해 일의 능률이 상승할 것 이라고 본다. 자세히 기억은 안나지만 외국 한 기업에서 주4일제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으며 인터넷에서 우리나라 주4일제인 회사를 다니는 한 직장인의 글을 본 적이 있다. 근무하는 날이 적다보니 회사 내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확실히 덜 지치고 일의 능률이 올라간다고 글쓰고는 말했다. 이 글을 읽고 주4일제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

Q4. 90년대생의 빠른 퇴사와 이직을 좋게 볼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선진 - 빠른 퇴사와 이직을 좋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아 일찍 더 맞는 적성을 찾는 것을 옳바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빠른 퇴사와 이직이 반복된다면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현상 또한 하나의 유행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람들이 퇴사하고 여행을 즐기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활동을 하고 퇴사의 좋은 점을 이야기 하며 권유하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한 영향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빠른 퇴사와 이직으로 좋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신호영 -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타인이 보기에는 빠른 퇴사와 이직이기에 선부른 판단으로 보일 수 있고, 무책임한 선택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취업난에 대해 그 누구보다 선명하게 느끼고 있을 사람들이 이를 결심했다는 것은 그 회사와 함께할 자신이 없다는 충분한 생각을 통해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생각된다. 더이상 하나의 회사에만 충성을 바치는 시대가 아니다. 회사보다 자기 자신이다. 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곳, 내가 있기에 충분히 가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의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기껏 다 가르쳐 놓은 신입사원이 그만두고 나가는 것이 뼈아픈 일이라는 것에는 동

의한다. 회사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부분 중 하나가 신입사원 연수라고 특강에서 들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비싼 돈 들여놓은 인재를 놓치는 것이 어찌면 가장 큰 적자이고 손실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 회사가 정말 다닐만하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곳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만둘 이유가 없다. 90년대생의 빠른 이직과 퇴사가 오로지 90년대생의 탓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일단 그 생각부터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쪽만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면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선아 - 나는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좋게 보게 되었다. 예전에는 한 가지 분야에서 깊은 전문적인 지식을 원했지만, 요즘에는 달라졌다. 여러 가지 분야의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에 90년대생의 빠른 퇴사와 이직은 여러 가지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좋게 생각하게 되었다.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세상에 발맞춰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보편화되었을 때 우리는 좀 더 자유롭고 쉽게 자신만의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될 것이다. 물론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없는 너무 빠른 퇴사와 이직은 절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세현 - 90년대생의 경우 내가 보기에는 끈기가 다른 세대보다 부족하며 다소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다른 세대들보다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의 꿈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 속의 빠른 퇴직이나 이직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냥 단지 좀 힘들고 다른 곳을 다녀보고 싶고 (물론 이런 마음으로 이직은 쉽지 않지만) 앞서 말한것에 비해 가벼운 이유로 빠른 퇴사나 이직을 하는 것은 좋게 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때 SNS에서 퇴사가 유행아닌 유행이 된 적이 있다. 자기의 꿈을 찾아 퇴사를 한다고 퇴사서를 찍어올리는 게시물이 좀 있었다. 90년대생이 SNS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세대인 만큼 '남들이 하니깐 나도' 라는 생각으로 빠른 퇴사를 하는 사람도 있을거라 생각해 좋게 보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Q5. 우리가 생각하는 '꼰대'는 어떠한 존재들인가? (자유롭게)

유선진 - 꼰대는 한 마디로 옛 사고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과 달리 과거에는 공동체를 중요시하고 집단주의를 강요했다. 또한 불합리함에 대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버텨내야만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한 사고를 시대흐름이 변한 지금에서도 직장 내에 적용하며 강요하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들에게는 그것이 참다운 답일 수 있겠지만 이제 새롭게 사회생활로 들어오는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더 이상 그러한 사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꼰대라 불리는 그들도 험난한 인생을 버텨온 것이겠지만, 누군가에게 똑같이 험난한 인생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신호영 - 내가 생각하는 "꼰대"는 과하게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들이다.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이거 안다고 함부로 가르쳐 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건 친절도 아니고, 후배를 위하는 선배의 마음도 아니다. 고한

오지랴은 거부감만 들 뿐이다.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나서서 도와주려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과한 오지랴 말고도 끈대짓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런 행동들은 조금만 다시 생각해보면 자신이 끈대짓을 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하지만 과한 오지랴은 인지하기도 어렵고 하기도 쉽다. 회사에서 한번도 일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신입사원이 가장 쉽게 마주칠 수 있는 끈대짓이 바로 이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나이를 정말 드시기만 한 분일수록 이런 행동은 쉽게 하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 조금만 주의를 덜 기울여도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아주 쉽게 끈대짓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앞서 말했듯, 끈대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끈대가 될만한 행동은 하지 않게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자각을 했든 못했든 끈대짓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에게 자유롭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수평적인 조직이 일반화된다면 충분히 그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선아 - 자신만의 생각이 '세상의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이 지내왔던 시대와 관습이 정답이고 현재 달라져가는 것들은 정답이 아니라는 식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끈대는 기성세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90년대생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수이기는 하지만 끈대는 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대마다 가지는 보편적인 기준이 정해지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정답은 달라질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들만의 생각의 '세상의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의 전 세대도 다음 세대도 그들만의 정답이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은 우리 '세대의 답', '시대의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세대의 답을 존중해주는 것이 좋은 세상을 만들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세상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세현 - 자기가 살아온 시대와 지금 시대는 다른데 아직 그곳에 머물러 있으며 자기 얘기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끈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세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끈대라고 생각한다. '나 때는 이랬는데~', '내가 살아온건 이랬는데' + 충고 가 그예이다.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돼! (취업에 관한 뉴스를 보고) 나 때는 말이야,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면 감사합니다~하고 들어갔어! 취업 안된다는 소리는 다 거짓말이야! 요즘 애들 눈만 높아지면서 노력은 안해서 그래.' 라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끈대는 딱 이런 사람이다 라고 느꼈다.



2019년 5월 14일

참가자대표 : 유선진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199X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9년 5월 16일(목요일) 장 소 : 브리콜라주							
참석자 명단	학번	20162121	이름	유선진	학번		이름	
	학번	20182120	이름	신호영	학번		이름	
	학번	20183934	이름	유선아	학번		이름	
	학번	20183943	이름	이세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3회> 도서 - 90년생이 온다, 임흥택, whale books, 2018 [90년생이 온다] 3부-‘90년대생이 소비자가 되었을 때’를 읽고 질문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토의해보았다.</p> <p>Q1. 90년대생의 전 세대와는 다른 소비특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불매운동, 원플원 더 이득적으로 효율적으로 사려고 하는 모습, 인터넷 입소문에 따르는 소비, 적극적인 피드백요청, 적극적인 컴플레인?, 광고를 싫어하는 것 등등...)</p> <p>유선진 - 할인을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통신사 할인이나 카드 할인 등 본인에게 제공되는 할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책에서도 나왔지만 예전에는 할인을 받거나 더 싸게 구매하는 것이 남들과 다른 특권이라 여겨졌지만, 요즘은 그 특권이 보편적이게 되고 남들보다 비싸게 사는 사람을 호갱 취급을 한다. 나도 일전에 통신사 할인과 같은 혜택을 사용하기 귀찮아서 그냥 구매를 하곤 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왜 통신사 할인을 받지 않느냐고 받으라며 성화를 냈었다. 원 가격 그대로 내는 것도 손해가 아닌데도 손해를 봤다는 식으로 아쉬워하니 이해할 수 없었다. 그 후 나도 여러 할인 혜택을 사용해보며 느낀 점은 이러한 혜택은 잘 찾아보고 정보를 얻어 사용할 수 있고, 생각보다 높은 할인율과 그러면서 더 싸게 얻은 뿌듯함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p> <p>신호영 -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던 특징은 세 가지 정도인 것 같다. 첫 번째는 불매운동이다. 다른 어떤 불매기업보다 가장 크게 느껴지는 기업이 바로 ‘남양’이다. 정말 모든 문제가 다 터진 기업이기에 있는 정, 없는 정 다 사라진 기업이다. 게다가 많은 사람에게 불매운동이 퍼져나갔고, 잊을만하면 불매해야 한다고 일깨워 주는 사람들도 있어 잊히지 않는다. 정말 심했을 때는, 남양이 불매해야 하는 기업인 것은 기억나는데 그 이유가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아무튼, 실제로 내가 남양기업 불매를 실천한 제품은 ‘초코에몽’이란 제품이다. 초코우유가 먹고 싶을 때마다 항상 사 먹던</p>							

제품이었는데, 남양 제품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그 뒤로는 한 번도 사 먹지 않았다. 다른 초코우유를 사 먹으면서 대체했다. 별거 아닌 불매이고, 나 하나로는 큰 타격이 없을 정도이지만,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인지 실제로 남양의 실적이 낮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두 번째는 인터넷 입소문에 따른 소비이다. 나는 SNS 중에서 트위터만을 하는데 여기서 리트윗으로 추천되는 상품 주로 먹을 것 등을 기억해 놓는다. 그리고 마트를 갔다가 보이면 이것 맛있다고 했다는 제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처음 보는 제품임에도 망설이지 않고 사버린 적이 많다. 이렇게 구매한 상품 중에서 아직 실패한 적이 없어서인지 어느새 믿고 구매하게 되는 경지에 올랐다. 마지막은 광고에 대한 거부이다. 유튜브나 네이버TV로 동영상 볼 때면, 15초 광고가 그렇게 짜증 날 수가 없다. 그 15초가 오히려 내가 보려는 동영상 길이보다 길 때도 있어서 더 짜증이 난다.

유선아 - 90년대생의 소비특징 중 인터넷 후기글에 따른 소비에 대해 말하고 싶다. 90년대생부터는 인터넷이 발달해가면서 그 혜택을 본 세대이다. 그래서 그만큼 인터넷 활용능력이 뛰어난 세대 중 하나이며 이것은 소비할 때도 사용한다. 항상 상품을 사기 전에 인터넷에 후기글을 꼭 찾아본다. 판매사이트의 후기글도 보지만 그 보다는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 블로그, SNS 등을 많이 찾아본다. 하지만 그 중에 광고로 상품을 소개하는 글이 훨씬 많기 때문에 90년대생은 광고글을 의심하고 잘 구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기가 원래 사려고 했던 물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매우 적극적으로 구매를 추천하는 후기글을 보고도 소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세현 - 90년대생의 소비특징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있다. 그 중에서도 일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제일 인상깊었다. 불매운동이라 함은 비교적 짧은 시일안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남양유업' 불매운동은 계속 이어져 4년제 매출 하락세로, 불매운동이 적극적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다. 물론 90년대생만이 불매운동을 한것은 아니지만, 불매운동이 시행되는것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줬다고 본다. 유일하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것은 입소문에 따르는 소비이다. 충동구매를 부추길 뿐, 이로 인한 긍정적인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Q2. 책에서 저자는 90년대생이 영화관을 찾지 않는 이유에 대해 영화를 보는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우리 넷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각자가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선진 -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너무 잘못된 과대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영화를 보는 내내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이유 때문에 영화관을 가지 않는다고 말할 90년대 생들은 터무니 없이 적을 것이다. 내 생각에 90년대 생들이 영화관을 가지 않는 이유는 영화 관람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발전한 정보기술로 인해 우리는 집에서 영화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고 영화관보다 더 싼 가격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넷플릭스나 왓챠같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사이트 또한 생겨나면서 더 이상 우리는 영화관을 가는 것이 사치가 되어버렸다. 간혹 더 큰 화면과 사운드로 질 좋은 영화 시청을 위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집에서 시청할 수 있는 영화를 굳이 영화관까지 갈 필

요가 없어진 것이다.

신호영 - 영화관을 찾지 않는 이유는 영화표 값이 심하게 올랐기 때문이다. 뮤지컬과 같은 다른 여가 생활보다 비교적 접근하기 쉬웠던 극장이 이제는 너무 비싸져서 더 이상 서민이 쉽게 누릴 수 있는 여가생활이 되지 않은 기분이 들 정도이다. 그러다보니 그 비싼 값을 내고 볼만한 영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 굳이 극장까지 가지 않는다. 요즘에는 스트리밍 사이트가 매우 잘 되어 있다. 나만 해도 극장에서 보기에는 시간도, 돈도 없을 때에 조금만 기다리면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라올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고 말지라는 감정이 생긴다. 집에서 혼자 편하게 보면 극장에서 마주칠 위험이 있는 민폐 관객들과 함께 스트레스 받으면서 보지 않아도 되고, 화장실이 가고 싶을 때 화장실 가는 시간을 챙기면서 영화도 빠짐없이 볼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 단점이라면 음향설비나 화면의 크기 정도인데, 음향은 몰라도 크기는 요즘에 빔프로젝트가 워낙 잘되어있기 때문에 집에서 자신만의 극장을 만드는 것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더이상 영화관을 찾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단언컨데 절대 그 이유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지하게 대답하는 경우는 극소수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응답을 하는 사람들은 90년대생의 특징이라고 보기보다는 스마트폰중독자들의 특징이다.

유선아 - 영화를 같이 보는 영화관의 사람들의 비매너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90년대생이 아닌 다른 세대들과 같이 보게 될 때 비매너인 행동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다. 영화를 보는 중간에 전화를 한다든지 같이 온 일행과 수다를 떠다든지 등등. 개인을 중요시하는 90년대생은 이렇게 내가 영화를 볼 권리를 침해하는 일에 많은 불편을 겪고 불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세현 - 나는 90년대생이 영화관을 잘 찾지 않는 이유로 비싼 영화표값과 진상 관람객의 증가로 본다. 과거에는 영화 한편을 만원 이하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값이 올라간 것과 영화관 자체에서 표값을 올린 것이 겹치며 정말 많이 비싸졌다. 그로 인해 심심할때 보러 갔던 영화가 정말 보고싶은 영화가 있어야만 영화관을 찾게 되었다.

진상 관람객은 옛날부터 항상 있었으나 영화표 값이 비싸지며 '비싼돈 주고 보는데, 스트레스 받으며 봐야하나?' 라는 생각으로 영화관 자체를 잘 안가는 이유가 되었다. 떠들고 앞자리를 발로 차는 아이를 말리지 않는 부모, 영화도중 아이와 대화하는 부모, 남의 자리에 무턱대고 앉고 영화 상영중 핸드폰 불빛을 켜는 관람객으로 인해 영화관에 가기 싫어졌다.

Q3. 90년대생의 유튜브의 소비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유선진 - 접근성·편리성과 친숙성, 그리고 다양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유튜브는 접근하기가 편리하다. 동영상 목록도 보기 편하며 추천 영상 등도 접하기 편하다. 또한 동영상 전에 시작하는 광고도 거의 5초만 보면 되기 때문에 다른 동영상 어플보다 동영상 시청이 편리하다. 더불어 친숙성의 특징이 유튜브 소비를 증가시켰다고 생각한다. 유튜브의 유튜버들은 우리와 같은 일반인이므로 (요즘은 거의 연예인같은 존재로 변하고 있지만) 그들의 일상이나 이야기를 담은 동영상을 보며 공감도 하고 동경도 하고

재미도 느낄 수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vlog 영상을 좋아하는데 같은 시간을 또 다른 일상으로 보내는 영상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동경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의 특징이 유튜브 소비를 증가시켰다고 생각한다. 일반인들을 포함하여 연예인들까지 유튜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말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가 생성되고 그로 인한 다양성으로 많은 소비를 이끌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신호영 - 쉬운 접근성이라고 생각한다. 영상을 올리기도 쉽고, 시청하기도 쉽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한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클럽 동영상을 볼 때 이용하는 사이트가 유튜브와 네이버TV인데, 이 둘의 차이는 일단 광고이다. 네이버TV는 광고가 15초가 디폴트이다. 그러나 유튜브는 비교적 짧은 광고 또한 많고, 유료서비스이긴 하지만 광고가 아예 없는 버전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네이버TV에서 일반인이 개인채널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유튜브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팬들이 편집하거나 직접 촬영한 영상들을 보는 것이 유튜브가 훨씬 쉽다. 게다가 몇 년 전에는 아프리카tv의 횡포로 인해 그곳의 인기 BJ들이 유튜브로 대거 유입되기도 했다. 이런 외부적, 내부적 요인들이 합쳐지면서 점점 유튜브의 소비가 증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선아 - 내 생각에 90년대생을 타겟으로 한 상품이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현재 TV방송 프로그램은 걸로로는 90년대생을 타겟으로 한 것 같지만 잘못 짚은 방송들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TV방송 프로그램이 점점 재미없어져 딱히 TV를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그것을 대신에 유튜브가 자리 잡게 된 것 같다.

이세현 - 유튜브는 누구나 영상을 올릴 수 있고, 유일하게 광고를 안 볼수 없는 유료 멤버십인 유튜브 레드(프리미엄)로 인해 소비가 증가했다고 본다. 유튜브같은 플랫폼의 경우 거의 매번 영상을 볼때마다 광고가 등장한다. 광고는 볼때마다 없으면 좋겠고 광고 넘김버튼이 없는 광고를 볼때는 15초 남짓한 시간이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진다. 유튜브 레드 경우 유료멤버십이지만, 광고가 아예 뜨지 않는 탓에 유튜브를 이용하기 정말 편해졌다. 이것은 처음에 한해 한달을 무료로 제공해주는데, 나도 이용해본 결과 광고가 뜨지않아 영상을 즐기기 편하고 이로 인해 동영상 을 보는 양이 늘었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유튜브의 소비가 증가한것 같다고 생각한다.

Q4. 전 세대들과 다르게 90년대생들의 불매운동이 영향력이 커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유선진 - 시대가 변하면서 기업들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투명한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서 불매운동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사회생활 및 소비의 주된 층인 90년대 생들이 불매운동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90년대 생들의 불매운동이 증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호영 -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SNS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그 덕에 예전이었던 문혔을 회사들(갑)의 횡포가 쉽고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잊힐 때쯤에 이 기업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불매해야 한다는 글이 주기적으로 올라오기도 한다. 그 글을 보고 사람

들은 다시 그 일을 떠올리고 사는 것이 꺼려지게 된다. 게다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기업일수록 그 경향은 더 커진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남양과 한샘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남양의 경우 자신들의 기업 이미지가 매우 나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를 개선할 생각보다는 숨기려고 애쓰는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남양은 이미지 회복에 실패하고 더욱 큰 반감만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설사 SNS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위에 이런 사실들에 대해 알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사지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일들이 알음알음 퍼져나가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불매운동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고, 나아가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다. 물론, 충분히 대체 가능한 품목이 있을 때의 이야기라는 것이 한계점이다. 삼성이 아무리 불매할만한 짓을 저질러도 이 기업을 대체할만한 상품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적은 이상, 별수 없이 그 기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라도 독과점 기업들이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선아 - 미디어의 발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특히 인터넷과 SNS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잘 확산되지 않았던 것 같다. 요즘에는 SNS에 글을 쓰면 사람들이 퍼가면서 확산되는 시간이 정말 빠르다. SNS말고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써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불매운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영향력이 커지게 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만큼 확산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정보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세현 - 90년대생의 SNS 이용이 가장 활발해 불매운동에서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90년대생이 많이 이용하는 SNS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공유 기능을 통해 불매운동을 시행하는 기업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것이 불매운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책에서 다뤘다시피, 90년대생은 기존의 세대보다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부당한것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점과 SNS의 활발한 사용과 맞물려 불매운동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Q5. 90년대생을 위한 타겟 상품 중에서 성공적인 상품 또는 실패한 상품에 뭐가 있는지 얘기해보자.

유선진 - 성공적인 상품으로는 명량하도그나 팔공티처럼 대중적인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한 음식과 스파오의 해리포터 콜라보나 ost의 카드캡터 체리 콜라보와 같은 콜라보 제품이 생각났다. 명량하도그나 팔공티의 경우에는 다른 가게보다 더 싼 가격으로 부담 없이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점이 성공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판매 가격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서 맛을 보장하면서 가격을 낮춘 것이다. 그리고 스파오와 ost의 콜라보 제품은 90년대 생들이 유년시절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와 만화를 선정하여 콜라보 제품을 만든 것이 신의 한수라고 생각한다. 90년대 생들의 향수도 불러일으키면서 한번쯤 영화와 만화 속에 등장하는 옷과 악세사리를 입고 싶다는 바람을 실현한 것이다.

신호영 - 과도한 신조어 혹은 인터넷 용어를 사용한 상품명은 개인적으로 거부감이 든다. 편의점에서 잠깐 출시되었다가 사라진 인터넷용어를 사용한 케이크의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90년대생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다 아는 것이 아니다. 나 또한 모르는 것들이 많아 검색이나 주변에게 물어가면서 알게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 것을 단순히 유행이라고 생각해서 상품명으로까지 해서 출시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경우라고 생각한다. 그런 제품을 보면 이런 신조어도 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궂대들의 발상이라고만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

유선아 - 90년대생이 자주 쓰는 용어 'ㅇㄱㄹㅇ ㅂㅂㅂㄱ'(이거레알 반박불가)를 붙인 편의점 상품 생크림 케이크가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처음에 새로 나왔을 때는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지만, 그 순간뿐인 것 같다. 지금은 편의점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책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90년대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은어가 빨리 바뀌기에 저 단어는 계속 쓰이긴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는 줄어드는 것 같다. 단기간의 판매수익을 원했던 것이 라면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쪽 둘러보았을 때 단기간에 그 상품을 산 사람도 생각만큼 많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이세현 - 나의 생각은 반대로 GS25에서 판매하는 'ㅇㄱㄹㅇ ㅂㅂㅂㄱ' 케이크가 비교적 성공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ㅇㄱㄹㅇ ㅂㅂㅂㄱ는 이거레알 반박불가의 초성으로 어떠한 것에 확신에 차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는 정말 맛있다라고 확신하는 의미로 쓰인 것 같다. 상품이름 자체가 초성인 것은 처음이며 거기다 인터넷 용어여서 그런지 이 상품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름에 걸맞게 맛과 가성비도 좋아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 후에는 'ㅇㅈ?ㅇㅇㅈ' 케이크도 출시 되었다. 다른 세대에게는 이 케이크 이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 그리 좋은 시도는 아니었지만 이 말을 직접 사용하며 의미를 아는 90년대생들에게는 성공한 상품이라고 본다.



--	--

2019년 5월 16일

참가자대표 : 유선진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199X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9년 5월 20일(월요일) 장 소 : 브리콜라쥬							
참석자 명단	학번	20162121	이름	유선진	학번		이름	
	학번	20182120	이름	신호영	학번		이름	
	학번	20183934	이름	유선아	학번		이름	
	학번	20183943	이름	이세현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4회> 도서 - 세대게임, 전상진, 문학과지성사, 2018 [세대게임]을 읽고 질문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토의해보았다.</p> <p>Q1. 청년세대의 비참한 사정(N포 세대, 수저계급론, 노오력주의, 헬조선 등)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자.</p> <p>유선진 - 탄생한 여러 신조어가 청년세대의 비참한 사정을 잘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청년세대 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들도 한 번씩 현실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그 현실이 더 양극화되었기 때문에 청년세대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말이다. 특히 수저계급론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학교에 오면서 수저계급론을 더 실감할 수 있었는데, 나는 돈이 부족하여 여기저기 아끼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먹고 싶은 것대로 먹고, 사고 싶은 것대로 사고, 여행 갈대로 가는 모습을 보며 부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눈외로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더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생각한다.</p> <p>신호영 - “노오력주의”라는 말만큼 힘 빠지는 말은 또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 단어가 괜히 생긴 게 아닌 것처럼 실제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 중 하나라는 것이 더욱 슬프게 다가온다. 이 말은 수저계급론과 같이 쓰일 때가 많을 것 같다. 아무리 노력해도 쓸모가 없다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계급 상승의 한계와 맞물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옛말에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있다. 과거에는 이 속담이 실제로 가능했을지 모른다. 설사 그 시절에도 어려웠다 할지라도, 현대에 와서는 그 시절보다 훨씬 어려운, 꿈같은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누구나 노력만 열심히 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동화책 같은 이야기는 더이상 우리 곁에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개천에서 난 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용은 다른 용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그들만의 무리에서 배척되어 결국에는 그 한계를 경험하고 좌절하는 일만 남았을 뿐이다.</p>							

유선아 - 나는 N포 세대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다. 처음에는 이 단어를 보면서 나도 취업을 하려고 할 때는 저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보니, N 즉 꿈, 희망 자신의 삶의 가치까지 포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자신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N을 가지려고 살고 있는데 왜 N을 포기하면서 N을 구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N포 세대라는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오게 됐는지 궁금했다. 만약 90년대생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 아니라면 이것은 90년대생을 과도하게 관찰한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이세현 - 옛날 헬조선이란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부정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요즘은 헬조선이 지금 사회를 잘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말 그대로 살기 힘들다. 과도한 교육열로 학창시절 경쟁이 일상이었고 힘겹게 대학에 오니 등록금은 너무 비쌌다. 졸업 후 취직을 하려고 하니 취업문은 너무 좁다. 가뜰이나 좁은데 신입보다 경력직만을 찾는다. 취직해도 낮은 은행금리와 집값 폭등으로 내집 마련도 어렵다. 이 모든 것을 겪은 사람은 드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 상황을 모아본다면 이렇다.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것에 사회가 제일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Q2. 90년대생은 어떤 세대로 보는지 긍정적인 관점에서 단어로 표현해보자.

유선진 - 90년대 생을 개혁, 혁명, 혁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다. 과거에 내적으로 품고 있었던 바람을 외적으로 실현시킨 세대인 것이다. 특히 페미니즘을 비롯한 미투 운동, 동성애 등 성적 혁명이 눈에 띄게 일어났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받은 차별과 성폭행 등을 용기를 내 말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유명인들의 숨겨진 악행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처벌받았다. 아직 더디기는 하지만, 점점 우리 사회가 권선징악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90년대 생이 그 시작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신호영 - 긍정적인 관점에서 우리 세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면을 일단 먼저 생각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떠오르지 않아 우울해진다. 그시절 만큼은 아닐지도 모르나 현재도 만만치 않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루어진다. 여기에 더해 남녀간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남성 가해자와 여성 가해자일 때의 처벌 수위, 남성 피해자와 여성 피해자일 때의 처벌 수위가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사례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이 사회에 정을 붙일래야 붙일 수 없는 그런 삭막한 사례들이 줄지어 터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우리 세대를 명명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유선아 - 나는 '의문하는 세대'라고 표현해보고 싶다. 내가 생각하기에, 예전에는 하라면 하고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90년대생은 달라졌다. 위에서 시키는 것이 있으면 이걸 왜 시키는지, 옳은 행동인지 등을 생각하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아니라고 주장한다. 비록 실제 행동은 적극적으로 못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됐음을 강하게 깨닫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의문하는 것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많

은 문제점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기에 90년대생의 의문은 미래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세현 - 90년대생은 권리를 찾는 세대라고 본다. 비리가 있는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을 이끌어나가는 등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는데 열정적이고 직장 내에서도 칼퇴 등 정해져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의 원래 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전 세대에서는 불매운동이 오랜기간 이어져 온 적이 없었는데, 90년대생이 불매운동에 참여하며 4년동안 이어진 사례가 있다. 칼퇴의 경우 90년대생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용어가 생겨났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90년대생을 권리를 찾는 세대라고 표현하고 싶다.

Q3. 90년대생이 경험하고 느낀 사회, 시대상의 변화에 대해 말해보자.

유선진 - 나는 90년대 생이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중간에 걸쳐있다고 생각한다. 변화의 중간에 있었던 세대라고 생각한다. 특히 학교장면에서 일어난 변화를 가장 잘 느낄 수 있었다. 주6일 근무에서 주5일 근무로 개정되면서 노는 토요일, 일명 놀토의 개념이 사라졌다. 또 학교 선생님의 폭력이 정당하며 학부모들도 때려달라고 요구했던 시대를 거쳐 학교 선생님의 폭력이 없어지고 엄하게 처리되는 때까지 그 과도기를 90년대 생들은 겪었다. 학교 장면뿐만 아니라 최근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페미니즘 운동이나, 동성애와 같은 주제에서의 인식 개선과 정치세력의 투명성 등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주요 변화들을 겪었으며 또한 계속 주도하는 과정 속에 90년대 생들이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신호영 -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낀 사회상의 변화는 역시 세월호 사건부터 해서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지는 그 시간대의 일이 아닐까 싶다. 여기에 더해 미투운동, 페미니즘이 해당 될 것 같다. 촛불시위에 관해서는 부끄럽지만 지방에 있다는 핑계로 참가해본 적이 없어 딱히 쓸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물론 다른 변화들도 내가 직접적으로 느꼈다 하기에는 조금 방관자 같은 느낌이 있긴 하다. 그래도 그나마 가깝게 느껴졌던, 그리고 크게 느껴졌던 변화는 바로 미투운동과 페미니즘이다. 워마드와 맞물리면서 페미니즘에 대해 안좋은 여론이 형성되고 사회악처럼 여겨졌던 그때를 지나서 지금은 조금 그 열기가 사그라 들었을 뿐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안티페미'는 안타까울 따름이다. 현재 초등학생들에게 여자아이들이 숏컷으로 머리를 자르면 너 페미냐고 물으면서 놀린다고 한다. 안티페미가 일종의 사회현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퍼져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이다. 미투운동과 페미니즘 덕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전이였다면 그냥 묵묵히 참고 넘겼을 문제들을 예민하고 기민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좋은 쪽으로 아주 천천히 바뀌어가는 식의 긍정적인 면이 나타난 것은 반가운 변화이다. 하지만, 이와 병행해서 남녀 간 갈등이 과하게 심화된 것은 안타까운 변화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유선아 - 나는 90년대생이 이때까지 경험한 시대는 인권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현재와 내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때를 비교하면 그때 있었던 일들은 지금 있으면 논란이 될 만한 일들이었다. 체벌을 비롯하여 선생님의 자질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다. 이는 앞의 답

에서 말했던 의문하는 행동과도 관련 있는 것 같다. 왜 선생님한테 심하게 맞는 것이 선생님이라는 이유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 의문을 하면서 한국 사회의 질은 많이 향상되었고 이 의문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세현 - 게임에 비유해서 말하자면, 옛날은 짜여진 맵을 한단계씩 통과 하면 클리어 지점이 보이는 게임이고 지금 사회는 내가 직접 맵을 만들며 진행하지만 클리어 지점이 안보이는 게임으로 변한 것 같다. 어느 사회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내가 옛날 사회를 살아본적이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해석 할 수도 있다. 옛날은 졸업-취직-결혼 루트가 짜여진 것 같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최종 인생목표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때 결혼과 자녀를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취직도 지금보단 훨씬 쉬웠다고 알아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하나 옛날에 비해 쉬운게 없고 (유독 취직) 인생의 목표를 세우려 해도 실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느꼈다.

Q4. 비난의 '세대 게임'(=책임공방, 세대 간의 문제가 아닌 것을 세대 간의 문제로 몰아 싸움을 유발하는 것) 주장에 대해 공감하는지 아니면 하지 않는지 이유와 함께 말해보자.

유선진 - 세대 게임에 공감한다. 현재의 불공평한 사회가 형성된 데에 기성세대의 영향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과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기성세대들의 행동이 이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힘든 사회를 기성세대의 탓을 하게 된다. 이제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신세대에게도 그것을 강요하는 일부 기성세대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세대 간 서로의 방식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신호영 - 말만 들었을 때는 매우 그럴 듯한 이야기였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세대 간의 소통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비난의 세대 게임이라는 말에 100% 공감하는 입장은 아니다. 세대 간에 일어나 싸움과 견제는 내가 보기에는 그 세대 간 견해의 차이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지난 시간에서도 말했듯,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닌, 전 세대가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재가 일으킨 참사가 세대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래서 책임공방이라는 관점에는 조금 동의한다. 서로가 자신들 세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상대방만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책임을 묻기 때문에 세대간의 간극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선아 - 나는 저자가 주장하는 '세대 게임'에 공감한다.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겉으로만 보면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세대 간에 균형 있는 정치를 선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만약 자신의 세대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것은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의 문제인데 우리는 자신의 세대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세대를 비판한

다. 나는 그 세대의 공통된 주장은 같은 시대를 살아오면서 당연히 가지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주장과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세상은 변하고 그 주장과 생각이 지금의 시대에서는 틀렸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세대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세현 - 공감하지 않는다. '세대 게임' 보다는 세대 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가 부족하다. 당장 인터넷만 봐도 세대를 이해하려는 것보다 자신이 살아온 것만 생각하며 서로를 까내리기 바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 생각에는 각자 세대의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고쳐나가려 하기보다는 다른 세대에 대한 문제점만을 보기 바쁘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각자 세대에 문제가 있지만 이를 인지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세대 게임' 인 것 처럼 보였다고 생각한다.

Q5. 어떤 사람이 세대 카드를 쥐고 우리 사회를 흔든다고 생각하는가?

유선진 - 아무래도 90년대 생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 90년대 생 모두가 성인에 접어들었으며, 점점 90년대 생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 영향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인터넷이나 TV 프로그램 등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 등장하는 아이템의 변화였다. 이제 7080세대의 추억의 아이템(예, 삐삐 등)이 아닌 90년대 생의 추억의 아이템(예, 싸이월드, 버디버디 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작은 변화에서부터 세대의 흐름이 90년대생으로 이미 이동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90년대 생이 세대 카드를 쥐었으며, 90년대 생이 다른 세대들에게 영향을 가하고, 90년대 생이 만드는 변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호영 - 나는 기성세대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은 현재 대부분이 기성세대이다. 그들이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고, 그들이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에 나는 동의하는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90년생을 비롯한 젊은 세대는 더이상 나라의 소중한 인재이고, 자원이고, 미래가 아니다. 불쌍한 피해자이다. 기득권자들의 먹이 싸움에 휘말려버린 힘없는 약자라고 느껴진다. 해외에서는 악한 노년층으로 평가받는 층이 우리나라에서는 악한 기성세대이고, 선한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악한 것은 맞는 것 같은 청년세대, 싸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그 악한 기성세대에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정이 조금 나아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들에게서 그들이 가진 권력들을 가져오는 것을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다. 그들이 결코 순순히 청년세대와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나누어 가질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유선아 - 나는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각 세대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회에 열정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것은 돈과 매우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돈이 부족한 각 세대는 자신이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돈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보지 않기 위해 사람들 뒤에 숨어있는 것 같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여러 세대에 분포하고 있겠지만, 실상 이 사람들은 그 세대에 속하는 것이 아닌 다른 계층에 속해 그 계층

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세현 - 앞에 질문에 답했듯, 나는 '세대게임'에 공감하지 않고 세대 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세대 카드를 쥔 특별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각 세대마다 자신 세대의 카드를 가지고 다른 세대들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 사회를 흔드는 것 같다.



2019년 5월 20일

참가자대표 : 유선진

복클럽 운영보고서

복클럽 팀명	199X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9년 5월 22일(수요일) 장 소 : 브리콜라주							
참석자 명단	학번	20162121	이름	유선진	학번		이름	
	학번	20182120	이름	신호영	학번		이름	
	학번	20183934	이름	유선아	학번		이름	
	학번	20183943	이름	이세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5회> 도서 - 한국의 세대 연대기, 최셋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한국의 세대 연대기] 88만원 세대, X세대 부분을 읽고 각자가 맡은 세대에 대한 내용을 나누어보고 정리해보았다.</p>							
	<p><88만원 세대> 신호영 88만원 세대를 “비정규직 평균 임금 119만 원에 20대의 평균적 소득 비율 74%를 곱해 나온 88만원을 사용한 단어로, 우리나라 여러 세대 중 처음으로 승자 독식 게임을 받아들인, 탈출구가 없는 세대”라고 2007년 출간된 『88만원 세대』(우석훈·박권일, 2007)는 정의했다. 이 용어를 발판으로 3포 세대, 5포 세대와 같은 용어가 등장했다고 말한다. 취업특강 등 여러 곳에서 N포 세대를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정작 그 용어가 만들어지는 데 발판이 된 88만원 세대라는 용어를 이 기회에 처음 들어본 것이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다.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나는 이 세대에 살짝 걸쳐져 있는 입장이고, 완벽하게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IMF가 일어난 그 해에 나는 태어났지, 청소년은 아니었다. 실제로 88만원 사례라고 소개된 사례의 연령층을 보면 30대 초반의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세대와 완전히 떨어진 별개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그들이 가진 속성 중에서 일치하는 속성들이 많아 그러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 따라서, 나이대나 시간대로 보기에 꽤 떨어진 세대이지만 그들이 가진 속성에만 초점을 두고 나와 비교하면서 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했고, 그때 느낀 점들을 써 볼까 한다.</p> <p>88만원 세대에 관한 학술 연구들 사이에서는 이들 세대에 대해 ‘일상 생활의 모든 것이 놀이가 되는 세대’라고 지적한다. 이 글귀만 처음 보았을 때는 매우 큰 거부감을 느꼈다. 88만원 세대를 가볍게 보고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되는 대로 말한 걸로 느껴졌을 정도였다. 그래서 순간 욕했지만, 다음 페이지까지 읽고 난 뒤에 느낀 것은 이 사람들이 말하고 싶었던 바가 조금 이해가 갔다. 나의 추측이지만, 이 사람들이 저런 말을 쓰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가 결코 놀이로 보이지 않고, 웃을 수 없는 사건들을 웃음</p>							

으로써 희화화하는 그 정도가 다른 세대에 비해 높다는 점이었나 싶다. 그렇지만 만약 정말 이런 의도로 쓴 얘기라면 솔직히 조금 따지고 싶다. 이 책의 글쓴이의 말대로 오히려 이런 현은 씩씩한 현상이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88만원 세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지 않은 채 비웃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88만원 세대를 평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었다면, 그 세대의 당사자가 하는 말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었다. 88만원 세대에 속한 사람이 한 인터뷰 중 “여유가 있으면 부모님 도움을 받는 것에 일말의 죄책감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책의 표지에도 나와 있는 인터뷰 글귀였다. ‘여유가 있으면’이라는 전제조건이 붙긴 했으나, 나의 입장에서 저 말은 너무 말도 안되는 말이었다. 우리 세대가 부모님 세대보다 더 높은 스펙으로도 살기 힘들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내 집 마련이 아주 먼, 꿈같은 일로 느껴지는 것도 충분히 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큰 성인이 부모님에게 손 빌리는 일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은채 당연하게 요구한다는 것은 그 부모님에게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너무 딱 막힌, 유교적인 사고인 것일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를 키워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세대는 IMF를 직통으로 맞은 분들을 부모님으로 둔 세대이다. 그 분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환경에서 우리를 키워준 그 성의와 노력과 고생을 생각하면 저런 식의 요구는 인도적으로 해서는 안될 짓이라고 여겨진다.

유선아

나는 처음에 88만원 세대가 2030세대를 뜻하는지 몰랐다. 애초에 88만원 세대에 대해서 자주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 책에서는 88만원 세대를 2030세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2018년에 출판한 책인데도 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들은 기타 세대로 규정하고 있다. 그것으로 보았을 때, 이제는 세대 간의 나이 간격이 크지 않음에도 세대가 빨리 바뀌고 특징이 달라지는구나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기에 나는 90년대 후반까지 88만원 세대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다.

88만원 세대는 우리나라에 있는 각 세대 중에서 가장 부모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자란 세대라고 한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러면 가장 좋은 세대가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는 세대라는 점에서 책에서는 가장 불쌍한 세대라고 표현되고 있었다. 나는 아직 사회로 나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 크게 실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세대와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이었다.

내가 88만원 세대 부분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이기적인 88만원 세대’에 대한 내용이었다. 다른 세대들이 88만원 세대 즉, 2030세대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왔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책에 나온 각 세대의 인터뷰를 보면서 실감하게 된 것 같았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다른 세대, 88만원 세대의 윗세대들은 공동체 중심으로 공동체의 활동 예를 들어, 회사 회식이나 행사 등에 꼭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나는 그러한 관점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다. 우리 세대와 다른 관점과 생각들에 진짜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물론 그들의 그런 생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살아왔던 시대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졌겠고 그들은 그런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불만이 없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문

제는 그러한 생각을 다른 세대, 88만원 세대에 강요하면서 시작된다. 여기서 그들은 88만원 세대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인 일을 중요시하는 것에 대해 이기적으로 보는데, 이러한 생각을 없애기 위해 각 세대는 서로의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내가 그들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들이 우리 세대를 이기적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 세대도 공동체에 참여하라는 그들 세대의 강요를 정말 이기적으로 본다는 점이다.

<X세대>

유선진

변화를 일으킨 진정한 시작의 세대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90년대 생이 변화를 가져왔으며, 실질적으로 실현시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90년대 생 이전의 X세대가 이미 90년대 생이 느낀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다.

X세대는 70년대에 태어나 80년, 9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낸 세대를 의미한다. 이전의 산업화 세대나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세대의 이름을 당시의 특징으로 붙인 것에 비해, X세대라는 이름은 그렇지 않다. X세대의 X는 수학 방정식의 미지수를 의미하며, 정확하게 어떤 세대라고 정의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붙였다고 한다.

X세대는 산업화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기성세대와는 달리 처음으로 정치적인 안정감과 경제적·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성장했다고 한다. 또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TV, 인터넷, 이메일 등 대중문화 및 매체와 통신수단이 발달하였고, 보다 전통적인 관습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특히 이전에는 암묵적으로 필수적이었던 결혼이 선택으로 변하면서, ‘골드미스’라는 개념이 탄생하였다. 대중매체에서도 골드미스를 주연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선보였고 골드미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결혼은 하되 자녀를 낳지 않는 덩크족보다 골드미스를 더 멋지다고 인식하였고, 이와 같은 인식은 90년대 생까지 아직 이어지고 있다 본다.

이처럼 이전의 베이비붐 세대와 달리 더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X세대를 보면 현재 90년대 생을 지칭하는 88만원 세대와 닮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90년대 생인 나로서 X세대와의 접점을 생각했을 때 학교 선생님이 가장 잘 떠올랐다. 중·고등학교 시절, 학생들은 선생님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선생님을 선호하였다. 젊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해주고 유연하시기 때문이었다. 같은 90년대 생 선생님도 있었지만 X세대의 선생님들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X세대의 특징으로 90년대 생과 비슷한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제껏 시기 상 더 멀리 떨어져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더 가까운 X세대보다 더 친밀하게 느껴졌었다. 90년대 생인 나의 부모님이 베이비붐 세대였기도 했고, 세대 간 갈등상황도 베이비붐 세대와 더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기 상 더 가까운 X세대를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X세대에 대해 알 수 있었고, X세대와 90년대 생의 공통점을 알 수 있었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변화가 X세대부터 시작했음을 비로소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취업을 하게 되면, X세대와 더 많이 접하면서 90년대 생과 함께 어떤 시너지와 변화를 일으킬까 기대가 된다.

이세현

X세대(1970년대생~)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세대' 라는 의미에서 '미지수'란 뜻의 X를 붙여 만들어졌으며 신세대, 정보화 혹은 인터넷 세대 라고도 불린다. 이전 세대에 대해 처음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했다. 그로인해 이전 세대에 비해 활발한 소비활동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모습이 관찰되는 세대이다. 대중문화도 더불어 이때 성장하였다.

세대라고 하면 지금의 가치관과 많이 다른 기성 세대와 지금 세대, 세대를 극과극으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며 새로운 X세대에 대해 알게 되었다. X세대가 있는 것도 신기한데, 따지고 보면 기성 세대지만 지금의 우리 세대와 많이 닮아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학창시절에 컴퓨터를 사용했던 것, 비교적 풍요로운 소비생활을 한 것, '나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 지금 세대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한다.

그럼 X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독자적인 특성이 없어 중요하진 않지 않나 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지금의 당연한 것들의 시작 지점에 X세대가 있다는 것을 보고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여태 줄곧 직장 문화를 바꾼 것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90년생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X세대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X세대부터 직장에서의 탈권위 성향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중요한 X세대에서 회사와 가정, 일과 여가를 엄격히 분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변화의 시작은 X세대 라는 생각이 들었다.



--	--

2019년 5월 22일

참가자대표 : 유선진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199X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9년 5월 23일(목요일) 장 소 : 브리콜라쥬							
참석자 명단	학번	20162121	이름	유선진	학번		이름	
	학번	20182120	이름	신호영	학번		이름	
	학번	20183934	이름	유선아	학번		이름	
	학번	20183943	이름	이세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6회> 도서 - 한국의 세대 연대기, 최셋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한국의 세대 연대기] 베이비붐 세대, 산업화 세대 부분을 읽고 각자가 맡은 세대에 대한 내용을 나누어보고 정리해보았다.</p>							
	<p><베이비붐 세대></p> <p>신호영</p> <p>베이비붐 세대에 대해 읽어나가면서 이들은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몸소 겪어나간 세대로 느껴졌다. 한국사를 배우다가 현대사의 가장 끝자락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었다. 박정희 정부의 등장과 퇴장까지의 모든 기간,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을 외치며 분신자살을 한 전태일 사건 또한 이 세대가 성장하는 기간에 발생하였다. 거기에 금지곡과 관련한 이야기 또한 언급된다. 내가 좋아하는 TV프로그램 중 하나가 ‘불후의 명곡’인데, 거기에 전설로 나오는 가수들이 활동하는 시절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것이 “금지곡”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가 나올 때면 지금으로써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금지되었음을 말하고 이것이 나름의 웃음 포인트가 된다. 이 시대를 살아가지 않은 입장으로써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며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 그런데 이 무수한 금지곡이 쏟아진 시기마저 베이비붐 세대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새롭게 알 수 있었다. 단순히 전후 급격한 인구 증가가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붐”이란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만 알았지, 이들이 살아간 시기가 정말 무수한 사건 사고(거기에 대부분의 사건들이 너무나 유명한 사건들이다)가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p> <p>“대중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이기도 했으나, 동시에 시작된 국가에 의한 검열로 대중문화계의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이 크게 위축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이 세대는 산업화 세대와 젊은 세대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이 책에 나온다. 이 말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깁 세대”라는 말에 어울리는 점들을 소개해주고 있다. 자식이 3명 있을 때, 그중 가장 많이 치이는 자식이 둘째이다. 세대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젊은 세</p>							

대와 저 윗세대 사이에 끼여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세대인 것 같다. 이 ‘끼임’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민주화 세대”와 “산업화 세대”와의 비교에서도 나타난다. 저 세대에 속한 사람은 자신들이 달성한 변화가 세대의 이름에 붙었지만, 우리의 이 불쌍한 베이비붐 세대는 박정희 정부의 이름을 딴 “유신 세대”로만 불릴 뿐이다. 민주화 시대와 산업화 시대를 모두 겪었지만, 일등공신은 되지 못했기에 그 어디에서도 자신들이 이룩한 성과라고 자신있게 말하면 자신들만의 속성으로 만들지 못했다.

우리 부모님은 이 베이비붐 세대와는 아주 조금 떨어진 분들이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는 세대였고, 책에서도 기술되었듯 기성세대의 이미지나 끈대의 이미지가 강한 세대들이었다. 당연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떠올랐다. 매체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젊은 층 한 명 당, 두 명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아직 사회생활 시작도 안 했으면서 지레 겁먹고 태어난 죄밖에 없는 그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싫어하기까지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세대 못지 않게,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보다 더 불쌍한 세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일단 이들이 기성세대인 것은 맞다. 그렇지만,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한채 비난만 하고 있다 생각했던 그들이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세대는 확실히 젊은 세대의 부모층이 많아서인지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느낌이 더 많이 들었다. 우리 세대의 앞날을 걱정하고, 또 우리가 가진 속성들 중 그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속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라며 자성적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이 전까지 정말 열심히 기성세대를 비판했고, 그들이 너무 그들만을 생각하고 젊은 세대에 대해 공부를 하지 않는 너무나 끈대스러운 세대로만 바라봤다. 그런데 마지막에 읽게 된 이 책을 통해서 모든 기성세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 나름대로의 사정도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 우리 세대를 이해했던 것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겨우 할 수 있게 되었다.

유선진

베이비붐 세대를 생각하면 ‘희생’이 떠오른다. 물론 모든 세대가 힘든 점이 없는 것이 아니고, 희생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다른 세대에게 희생하고 그 희생에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사전적 정의는 전쟁 후 또는 혹독한 불경기를 겪은 후 사회적·경제적 안정 속에서 태어난 세대를 지칭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6.25 전쟁 이후인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를 부르는 또 다른 말은 ‘긴 세대’이다. 산업화 세대와 신세대 사이에 끼여 현재 양쪽으로 부양해야할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위로는 산업화 세대인 부모님을 부양해야하고 아래로는 X세대나 90년대 생인 자녀들을 부양해야한다. 들어갈 돈은 필요한 반면, 그들은 현재 은퇴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그러했듯 신세대의 자녀들도 자신들과 같다면 좋으련만, 신세대의 가치관은 그들과 달라졌으며 희생적이기 보단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모습을 보인다.

특히 이러한 대립은 현재 사회초년생으로 진입하는 90년대 생 자녀들과 부모와의 갈등에서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들은 직장에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관두거나 이직하는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하며 나약하다고 생각한다. 흔히들 끈대라고 불리는 자들이 말버릇처럼 하는, 자기 때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등 이야기를 한다.

나 또한 그런 류의 이야기를 몇 번 들었었는데,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들에게 들었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이 겪었던 힘듦과 가혹함 등의 척박한 환경을 강조하면서 그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희생했던 자신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한다. 물론 그때의 힘든 환경과 사회현실에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만 했던 부모님 세대를 비난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감사해야함을 느끼지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 부모-자녀 간 갈등도 적지 않으며, 특히 달라진 현재를 잘 알지 못하는 부모의 경우 그 갈등이 더 심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 또한 보여준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으로 인해 현재 신세대가 힘든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모습도 보인다. 하지만 아직 나로서는 그러한 사람이 많은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도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 신세대를 위해 많은 희생을 했음을 이해한다. X세대부터 가속화한 정보화로 인해 베이비붐 세대들은 직장에서의 위기를 느꼈을 것이고, 다들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컴퓨터를 전원부터 켜지 못해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또한 국가 간 여행이 자유로워진 시점에서 그들은 그들 자신들보다 다른 세대들을 부양하고 희생하느라 해외여행 한번 가보지 못했을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 읽으면서 부모님을 계속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 은퇴를 맞았지만 다시 재취업을 하셨다. 또 해외여행을 가본 나와 달리 부모님은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으시다. 위로는 양가 부모님들을 부양하면서 아직 학생 신분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를 읽으면서 부모님의 희생을 생각해볼 수 있었으며, 그들을 좀 더 이해하고 감사해야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세대 간 갈등 해소의 시작은 서로의 세대에 대한 정보 습득이 먼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산업화 세대>

유선아

산업화 세대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대충 어느 세대인지 가늠할 수는 있었지만 그 세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산업화 세대가 겪어왔던 시대와 일생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산업화 세대는 현재 노인 세대 즉,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속한 세대이다. 전쟁을 겪은 세대이며, 전쟁 이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직접 겪은 세대이다. 그리고 한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세대이다. 그러한 세대들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겪을 많은 갈등들은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을 겪은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들은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자신의 생각이 확연히 다를 것이다.

갈등이 유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유유서에 대한 관점 때문이다. 이제 요즘 세상에서 장유유서를 거론하며 주장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그만큼 시대는 많이 바뀌었고 사람들은 장유유서보다 인권, 개인의 권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변화가 옳다 아니다 하는 문제는 각 시대마다 추구하는 답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나는 문제의 정답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각 세대의 답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다. 가장 흔한 예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노약자 자리 배려에 대한 예가 있다. 나는 아직 직접 겪어본 적은 없지만, 책에 나온 인터뷰에서는 자리를 비켜주지 않

아 지팡이로 맞았다고 한 사람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그 세대의 장유유서에 대한 관점과 현대의 관점이 충돌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산업화 세대와 88만원 세대는 각자가 살아온 시대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기에, 사회에서 그만큼 더 많은 갈등을 보이는 것 같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역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세대를 배우는 것이다.

산업화 세대를 배워야하고 관심을 기울여야할 한 가지 더 이유는 그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들의 행태를 보인다는 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들의 모습이 된다는 말이다. 우리도 언젠가는 아랫세대들과의 사이에서 비슷한 갈등을 겪을 것이다. 그들처럼 노인이 될 것이고 그들과 같은 현실을 경험할 것이다. 현재 각 세대에서 '노인'하면 떠오르는 말은 빈곤, 우울, 건강 등 부정적인 모습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나도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면 걱정만 떠오를 뿐이다. 그만큼 현재 노인들의 현실은 비참한 상황이다. 각 세대들은 현재 그들을 보며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산업화 세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노후에 대해 생각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더해서 그들을 이해하며 갈등을 줄여가고 그들의 현실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세현

산업화 세대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성장의 전 과정을 목격해온 세대이다. 그들의 존재로 한국 사회는 큰 발전을 했다. 하지만 의료와 과학의 발달로 이들의 수명을 연장시켜놓았고 그 결과 한국 사회의 노인들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빠르게 사회가 변화되며 새로운 세대들과의 큰 가치관 차이가 생겼고 생활양식도 다른 나머지 큰 세대갈등이 야기되었다. 현재 노인세대, 즉 산업화 세대는 자신들이 키운 한국 사회에서 소외받는 세대가 되었다.

이 책을 읽기 전, 노인 세대의 대한 나의 생각은 부정적이었다.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우리랑 가치관이 너무 다른, 이미지 자체가 내게는 부정적이었다. 책을 읽으며 생각을 해보니 젊은세대에게 노인은 가끔만나는 존재가 되었고 노인과 함께하는 과정없이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만 노인을 접한 것이다. 언론과 미디어는 주로 자극적인 것들을 다루다 보니 노인에 대한 인식은 단편적이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노인 세대가 그렇지 않음에도 무조건 기호1번을 외치거나 태극기부대이거나 무조건적으로 탄핵된 누군가를 옹호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상식이 없는 존재로 노인 세대는 각인 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깨달으며 나는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치관 차이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과 다르게 노인세대는 유년기와 청소년 시대에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이다. 그러하다 보니 생존과 가족을 지키는것이 최대 목표였다. 그리고 가부장적이고 남성우월주의의 유교 문화를 가르침 받으며 장유유서의 논리로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다 보니 세대끼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살아온 환경 자체가 다르기도 하고, 나 자신은 이렇게 살아왔고 다른 세대를 살아본 적 없으니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세대를 이해하는 것은 애초에 너무나 힘든 것이었다.

책을 읽으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노인 세대를 상실한 세대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엔 의문이 들었지만 책에 삽입되어 있는 '세대별 본인 세대가 누린 가장 좋은 점 1~3 순위표'를 보고 한번에 깨닫게 되었다. 베이비붐 세대, X세대, 88만원 세대는 주로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관련된것이 대부분이 었지만 산업화 세대(노인 세대)는 1순위: 낭만과 정, 순수함, 우정등 인간적 가치를 지님. 2순위: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세대. 3순위: 깨끗한 자연환경을 경험 으로, 현재 사회에서 보기 힘든 것들이었다. 오늘날 노인세대는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가치있었던 것들도 상실한 상실의 세대라고 라고 하는것이 이해가 되었다. 이렇게 책을 통해 노인 세대를 다시 생각해보고, 조금이나마 그 세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5월 23일

참가자대표 : 유선진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199X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9년 5월 29일(수요일) 장 소 : 브리콜라쥬							
참석자 명단	학번	20162121	이름	유선진	학번		이름	
	학번	20182120	이름	신호영	학번		이름	
	학번	20183934	이름	유선아	학번		이름	
	학번	20183943	이름	이세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7회>							
	<p>이번 북클럽 활동을 총정리해보고 이번 활동을 통해 얻은 자신의 생각과 그 변화 등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았다.</p> <p>신호영</p> <p>이번 주제의 첫 번째 책인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은 지난 학기 말부터 이야기를 했던 책이었다. 종강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교보문고를 들렀을 때, 추천 책 코너에도 크게 놓여져 있었고, 소재 자체가 재밌어 보였기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던 책이었다. 하지만, 막상 읽기 시작한 책은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다. 언젠가 읽었던 책 리뷰에 “꼰대가 쓴 90년생 분석글”이라는 표현에 너무나 공감하면서,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정말 고통스럽게 책을 읽었다. 읽는 내내, 90년 생을 무조건 이렇다는 식으로 써놓은 단정적인 글들을 보면서 절로 인상이 찌푸러졌다. 그리고 첫 책이 이래서였는지 그 뒤에 읽었던 “세대 게임”에서도 똑같은 기분을 느꼈다. 심지어 이 책은 도입부를 읽었을 때는 너무 번역체로 느껴져 한국 사람이 썼다는 사실을 깜빡 잊었을 정도였다. 앞에 읽은 이 두 책이 나에게 준 충격이 너무나 컸다. 그리고 이 책의 글쓴이들도 거의 4, 50대였기에 괜히 그 세대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만 더 심해졌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읽게 된 “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의 세대 연대기”에서 지금까지 강화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금 완화시켜 주었다. 괜히 혼자서 평가하고 단정 짓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기술한 이 책 덕에 전 세대에 대한 포용력을 조금이나마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이전까지는 젊은 세대보다는 기성세대에게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만 생각했다. 그들의 사정은 조금도 생각해보려 하지 않았다.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했지만, 정작 나부터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기적으로 생각했는지 반성할 수 있었다.</p> <p>그리고, 내가 속한 세대가 어떻게 불리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는 N포세대조차 취업특강에서 처음 들었다. 우리가 저런 식으로 불린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는데, N포세대뿐만이 아니라 88만원 세대와 같이 다른 용어로도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 알게 된 것이라고 하면 ‘워라벨’ 또한 그렇다. 취업특강에서 워라벨이란 용어를 정말</p>							

많이 사용했는데, 마치 당연히 아는 단어인 듯 전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지 않아 여태껏 모르고 살았다. 그 특강을 듣고 있던 많은 학생들 중 나만이 그 용어를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 티도 내지 못했다. 그러다 '90년생이 온다'에서 워라벨이 등장하고 이와 관련한 일들을 소개해주었는데, 이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내가 싫으나 좋으나 윗세대와는 필연적으로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당장 부모님이 그 세대이고, 사회생활을 하면 직장상사가 그 세대의 구성원일 것이다. 그러니 그때 가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해 속 앓이를 했을지도 모를 일을, 이번에 세대에 대해 수박 겉 핥기 식으로나마라도 공부를 할 수 있어 무척 다행이다. 앞으로는 많은 사람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대 갈등이 점점 줄어들었으면 한다.

유선진

이번 북클럽 활동 전에는 한 번도 세대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간혹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와 같이 이름을 들어보긴 했으나, 자세히 알지 못했으며 크게 관심도 없었다. 하지만 요즘 달라진 사회 현상들이 눈에 띄면서, 알게 모르게 시대에 따른 특징과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세대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세대라도 개개인마다 경험하는 것이 다르니깐 세대 간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비슷한 면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나의 생각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었다. 각 시대마다 발생했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사건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이다.

90년대 생인 나로써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2016년도에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성혐오에 대한 이슈가 폭발하였고 많은 여성들이 경험했던 차별을 공개하였다. 이로 인해 나아가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사실을 고발하는 미투운동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성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과 다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현재진행형이다.

내가 속한 90년대 생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북클럽 활동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다른 세대에 대해 고찰했던 활동이 더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세대 간 갈등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다른 세대의 특징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특히 90년대 생인 나와 베이비붐 세대인 부모님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베이비붐 세대였던 부모님들이 어떤 풍파와 파란을 겪었는지 알게 되면서 그들이 지금의 90년대 생 자녀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세대에 대한 연구와 정보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 북클럽을 꽤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었다. 내가 속한 세대의 특징, 내가 경험한 갈등 등 나의 경험을 포함하는 이야기거리가 유익하고 재미있었으며,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유선아

처음에 이 주제를 선택한 것은 우리가 90년대생임에도 90년대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느낀 것에서 출발하여 90년대생은 대체 어떤 세대인지 알고 싶어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이제 사회로 나가는 90년대생은 많은 세대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으며 이제는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주역인 세대라고 느껴졌다. 그래서 90년대생을 탐구하게 된다면 사회의 변화를 예상하고 그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게 되었다. 더해서 각 세대 간의 갈등과 살아온 환경 등을 앞으로써 우리나라에 현

재 대두되고 있는 세대문제를 진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한 답은 북클럽 활동을 통해 대부분 얻게 되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북클럽 활동은 또한, 세대에 관해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계기가 되었다. 북클럽 활동을 하기 전, 각 세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대갈등에 대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대충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세대 간의 갈등이 그 세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책 '세대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래서 세대갈등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90년대생을 넘어 '세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 같다. 세대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공동체 집단을 넘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세대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학문적으로도 더 많이 발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미래 세대는 지금과 또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일지 궁금증을 가지며 이번 북클럽 활동을 마치게 되었다.

이세현

이번 북클럽 활동을 하며 전체적으로 '세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세대는 세밀하게 나누어지며 각 세대마다 뚜렷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세대들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책을 읽기 전, 각 세대에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보단 판단이 앞섰다. 각 세대가 살아온 정치적, 경제적 상황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언론과 미디어에서 다룬 단편적인 모습만을 보고 그 세대를 판단했다. 책을 읽으며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느꼈다. 특히 노인 세대에 대해 자극적인 모습만을 기억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은 채 비난한 것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 다른 세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과 동시에 나의 세대(90년대생)의 특징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다. '90년생이 온다' 책을 읽으며 90년대생이 아닌 저자가 느낀 90년대생과 90년대생인 내가 느끼는 90년대생을 비교해보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그리고 90년대생인 팀원들과 이 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토론해 본 것이 책을 이해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활동(토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무엇보다 북클럽 활동을 하며 사회적인 것을 다루는 책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2019년 5월 29일

참가자대표 : 유선진